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대신 감당하시는 예수님     성경: 마태복음 27장  
11-26절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  
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15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  
가 있더니

16 그 때에 바리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  
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리바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  
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리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  
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  
냐 이르되 바리바로소이다

22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  
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  
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

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이다 하거늘

26 이에 바리새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마27:11-26)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탁월한 삶을 살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의 삶이 그를 증거 한다.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면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삶의 내용의 질이 탁월하며 초월적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

그러나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세상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러 그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항상 그렇듯이 그들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서 믿지 않으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믿을 수 없다는 증거를 더 확보하려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까? 그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존심이 구기거나,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 지위 등에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일단은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데 무작정 반대하면 비겁해 보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반대 이유를 물색하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불필요한 휴지조각이라도 가져다가 내밀며 마치 그것이 아주 귀중한 양 떠들어대며 반대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자 안식일은 안식하며 쉬는 날이니 다른 날에 병을 고쳐야 하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안식일에도 곤란을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무도 병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등 탁월하고 초월적인 삶을 살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용납하시는 것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 결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며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다. 물론 오늘날이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예수님은 날마다 잔치하듯이 먹고 마시는데 거리낌이 없으셨다.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세례요한은 금식하며 광야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으니 그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 같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세속적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 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예견 하셨다.

예수님은 한 순간도 잘못 살으신 적이 없다.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도, ‘너의 말한 것이 옳다’고 짧게 대답하시고 그 후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왜냐면 그 말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빌라도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으로는 엉뚱한 소리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도 그는 머리만 끄덕이고 알아듣는 척만 할 뿐 로마 총독인 그로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헤롯왕과 전쟁을 한다거나 민란이나 폭동이 일어날지라도 정치적인 신념을 굽히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리 만무하지 않는가?

예수님으로서는 짧게 한마디라도 대답해 주는 것이 예우라고 여기셨을 것이다. 오히려 설득하려고 했다가는 미친사람으로 취급받을지 모른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수없이 많은 고소 내용으로 예수를 비난하였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다. 어차피 모든 내용이 로마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에 관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빌라도의 고민은 다른데 있었다. 총독의 체면상 영똥한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사형을 시켜야 하는가이다. 빌라도는 예수의 삶과 죽음에는 크게 관심하지 않았다. 저 여우와도 같고 늑대와도 같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골치 아플 뿐이다. 저들이 평상시에는 서로 물어뜯고 싸워서 적당히 바리새인들의 말로 대제사장들을 다스리고, 대제사장들의 말로 바리새인들을 다스리곤 하였는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두 파가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모함한다.

저들의 말을 들어 주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웬지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 같고, 이후에는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지를 때 통치하기 곤란해질 것 같은 느낌이 몰려온다.

예수님 이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명해 준다면 그 말로 저들을 압박지를 수 있을 것인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없다.

곤란한 차에 아내로부터 결코 예수라는 분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영적인 지침까지 받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아무말 없어도 웬지 모를 영적인 영향력이 감지되어서 무척 곤란한 지경인데 옆친데 덮친 격이다. 빌라도는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결국 눈치를 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악한 수를 사용하게

된다. 그것은 유월절 때문에 대목을 노리고 사방에서 몰려든 악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매수한 것이다. 세상에는 언제든지 악한 무리들이 있고, 그들은 항상 몇 푼 되지 않는 작은 돈에 팔려서 악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익숙하다.

바라바라는 소위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로마 군인 몇 명을 죽인 자가 있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을 이용하기로 한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중들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꺾어볼 생각이었다. 설마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바라바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대중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율법주의자들의 입을 막게 한 자가 예수님이 아니더냐?

명절이 되면 사면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풍습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면 되리라고 생각했다. 빌라도는 자신이 매우 유능한 자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대제사장들의 사전매수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바라바는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아마 날이 새고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빌라도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하라 해도, 막무가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법도, 논리도, 인정도 필요 없었다. 설득도 필요 없다. 오직 한 사람의 희생양만 필요하였다.

이때 빌라도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난 몰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도울 수 없다. 나는 귀찮은 거 싫어한다. 네가 책임져라. 너희들 일이다. 나는 하는데 까지 다 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백번 천번 소리지른다 해서 그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통치국의 대표이고, 정의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치리 앞에 억울하게 죽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 굴복하고 만다. 나는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이 저주를 너희들이 당해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자 군중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소리질렀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들팔매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대제사장들의 자객들에게 몰래 살해당하지 않았다. 당시의 왕이라는 헤롯도 예수를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대한 선지자일지 모른다 라고만 생각했다. 아무튼 어느 누구도 국민영웅 예수를 죽일 용기는 없었다. 사실은 아무도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오직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 예수를 죽이고 싶었다. 그들의 자존심과 욕심, 기득권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면서도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이용해 먹었다.

사람들은 그렇다. 때로는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리새인이 되기도 한다. 가끔씩 빌라도가 되기도 하고, 그보다는 더 자주 성난 군중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일 곤란한 자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도망가라고 하였고, 12제자들은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베드로는 도저히 배신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배신하고 있었다.

예수님도 당시로서는 배신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최측근 제자들로부터 더 많은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빌라도,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난 군중들 심지어는 자

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계셨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감당하기 원하셨다.

배신해도 좋다거나, 배신을 장려하거나, 배신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결국은 누가 그것을 감당하느냐의 문제이다.

얼마든지 나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혹시라도 잘 되면 덕 좀 볼까 했는데 내가 손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이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용기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왕자는 거지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면 왕자이니까. 천국 시민은 책임지고 손해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의 천국은 당신에게 나눠 주어도 전혀 손해가 나지 않는 천국입니다. 당신도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씨를 뿌리는 사람   말씀: 마가복음 4장

모두 발의 문제.